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12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7:1-6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9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5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있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항상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주의 백성을 통해 증거됨으로 저희를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룩하신 뜻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로마서 14:7-12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봉 헌(offering) 3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69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우소식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김희상권사님의 결석 제거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주집사님·김소라권사님(이지윤양) 가정이 미시건주 디드로이트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송별 애찬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로마서 14:7-12

-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7-9절)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2.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어떤 일들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게 됩니까?(10-12절)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까?
-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이상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약4:11-12).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에, 그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에 파숫군을 두지 않는다면 모든 헌신의 행위는 종교적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진정한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그분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 끊임 없이 반복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비판과 판단 대신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